

일자리 감소 가속...광주 이직률 전국 세번째

광주 빈 일자리 전년보다 10.5%·전남 26.3% 감소

광주 건설업 비중 전국 평균 상회...고용 안정성 낮아

광주·전남 지역의 일자리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 등 인력이동은 광주 지역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전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 말 기준 지역별 '빈 일자리' 수가 광주가 6517개, 전남이 420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0.5%와 26.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매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빈 일자리 수와 인력이동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은 빈 일자리 수 감소가 사업체의 인력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특히 인력수요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조사 기간 직전에 이직이 활발했거나 채용이 급증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광주 지역 빈 일자리 수 감소 현상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분야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2398개에서 올해 1909개로 20.4%나 줄었다.

또 첫 직장에 들어가는 비율인 입직률이 4.1%였고 직장을 옮기는 이직률 또한

3.7%로 높은 인력이동 비율(3.9%)을 보였다. 이는 인력이동 비율로 따질때 전북(4.3%), 대전(4.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광주의 인력이동이 활발한 이유는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9.2%)이 전국 평균(6.3%)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이 높을수록 빈 일자리는 줄고 인력이동이 낮다고 분석한다.

전남의 경우 빈 일자리 수가 전국(22만 9045개)의 1.8%를 차지, 전국 9개 도중 제주 다음으로 적었다.

하지만 입직률은 2.6%로 9개 도 중 경북(2.0%), 경남(2.6%) 다음으로 낮고 이직률 역시 2.6%로 경북(2.2%), 강원·제주(2.3%)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

동이동률이 많지 않았다.

이직률이 전년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나주(3.6%)와 여수(3.3%) 등이 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은 화순(6.4%), 영광(6.0%), 장성(4.4%)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건설업(9.7%)과 광공업(2.4%)이 높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사업체(종사자 1인 이상) 종사자는 광주 44만 6000명, 전남 51만 9000명으로 각각 전국(1624만 9000명)의 2.7%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는 7개 특·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에 인형 선물 어때요” 5일 광주신세계 8층 아동유아 매장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보이고 있는 동물 인형 프리미엄 완구 브랜드 ‘한사도이’ 제품을 손에 들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국 입지 좁아지는 중국 TV시장

점유율 5% 아래로...2년새 2.4% 하락

중국 TV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이 5%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자국산 비중은 85%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5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新浪), 왕이(网易) 등에 따르면 중국 TV 시장에서 삼성·LG 등 한국산 비중은 2014년 6.9%에서 2015년 5.6%로 낮아졌고 2016년(3분기 누계)에는 4.5%까지 내려가 5%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시장 내 대만산 TV의 비중은 2014년 2.1%, 2015년 3.7%로 올라가더니 올해는 4.4%로 한국산 비중과 비슷해졌다.

소니 등 일본산 비중은 2014년 9.0%, 2015년 6.6%, 2016년 4.4%로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중국 자국산은 2014년 76.6%에서 2015년 81.9%, 올해는 84.3%로 올라갔다.

중국과 대만산을 더한 차이나인(차이나+

타이완) 제품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TV 점유율이 35% 안팎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북미·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절반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 시장에서는 유독 맥을 못 추는 것이다.

한편, 시나·왕이 등은 중국 TV 시장의 주류가 레드오션이 된 LCD(액정표시장치)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급속히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포털과 IT 매체에서는 2018년 중국 프리미엄 TV 내수시장에서 올레드의 비중이 54%에 달할 것으로 점쳤다.

중국 TV 기업 중에는 스카이위스가 최근 BOE의 올레드 패널을 받아 자체 기술로 올레드 TV를 선보이는 등 올레드 TV로 제품 라인업을 차별화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매체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폐차후 새차 사면 143만원 할인

10년이 넘는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소비절벽’이 찾아와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려 온 자동차업계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 불집기에 사활을 걸 태세다. 여기에도 연식 변경을 앞두고 연말 대대적인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노후차 폐차 고객이 12월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7달간 시행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3.36 (-7.25)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2)

↓ 코스닥 575.12 (-11.61) ↑ 환율 (USD) 1174.60원 (+2.00)

수출탑 39개사·수출유공자 40명 훈포장

‘무역의 날’ 광주·전남 수출유공자 전년대비 51% 늘어

무역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출의 탑 39개사와 40명이 수출유공자 훈포장의 영예를 얻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제53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한국바스프(대표이사 신우성)가 7억불탑을 받는 등 39개 업체와 40명이 수출의 탑과 훈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바스프(대표이사 신우성)가 7억불탑, 파루(대표이사 강문식)는 1억불탑, 성장이앤씨(주)(대표이사 김기영)와 한국차량공업(주)(대표이사 조광철)이 오천만불탑을 수상하는 등 총 39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올해 무역의 날 백만불탑을 최초로 수상한 이 지역업체는 광주 9개사, 전남 4개사이다.

지난해 제5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은 광주 24개사, 전남 14개사로 총 38개사가 받았으며 수출유공자는 산업포장을 포함해서 총 26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출유공자가 전년대비 51% 증가하는 등 광주전남 수출기업인의 노고와 기업을 정신이 널리 인정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 박현수 부장이 철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성장이앤씨(주) 김기영 대표이사과 ㈜무등의 김선영 광주·전남 유공자에게 세계시장개척과 무역역진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포상 및 표창, 무역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남 소재 기업을 위한 ‘제53회 무역의 날 전남 수출의 탑 전수식’을 오는 13일 목포 현대호텔(영암)에서 개최한다. 또 광주는 21일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53회 무역의 날 광주 수출의 탑 전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500억원 사모채 발행

금호타이어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 후 두 번째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이날 2년 만기 사모 회사채 5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자율은 연 4.7%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5일 4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한 데 이어 두 달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워크아웃 당시 상환을 유예받았던 차입금을 내년부터 갚아야 한다”고 채권 발행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금융권 총 차입 규모는 2조 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올해 3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사모채를 발행해 차입금 상환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디케이 공기청정기·제습기 68% 할인

‘소비자의 날’ 기념 9일까지

스마트에어가전 전문기업 디케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보곤 회장)는 소비자의 날(지난 3일)을 맞아 오는 9일까지 디에테(d'ete)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최대 68% 할인판매한다.

디케이 주식회사는 광주·전남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 받은 기업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중심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표시되는 인증마크로 소비

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디케이 주식회사는 이를 기념해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했다.

한편 디케이 주식회사는 삼성전자와 25년여 파트너사로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등을 통하여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축은행중앙회 실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실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속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 223-5506

구도청1 ●충정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O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상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바이스카짓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한국방수연구소 연구원 2009-2010년 최우수
발명성공실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실패를 타고
먼지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업치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과 난 엔디니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종문문화센터 옥상서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강릉군보건의료원/대전대학교/태백시보건의료원/시립도서관/강화군청/안동군청/부산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010-6603-040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